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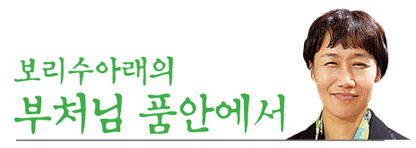


금강권보살

도상 상단에 있는 금강권보살은 금강수원에 속하는 보살로서 용맹정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강지혜의 망치로 삼독(三毒, 탐, 진, 치)의 번뇌를 부숴 없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십자 금강저는 갈마 금강저라고도 하며 갈마는 작업(作業) 또는 행위(行爲) 등의 의미를 말하고 좋은 일은 용맹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보살이다.

도상 하단에 있는 분노월염(忿怒月厭)보살에서 월(月)은 청정(淸淨)하다는 의미이고, 염(厭, tilaka)은 몸의 색이 검다는 의미이다. 얼굴에 삼목(三目)이 있으며, 이마의 눈은 지혜의 눈으로서 모든 장애를 파괴한다고 한다. 〈대일경〉에서는 대일여래의 변화신(變化身)으로 분노강삼세라 칭하기도 한다. 이 보살은 4해탈을 표현한다. 4해탈은 공(空), 무상(無相), 무원(無願), 자성명량(自性明亮)을 말한다. 위의 두보살의 진언을 수행함으로서 삼독(三毒)을 벗어나고, 사해탈(四解脫)을 성취(成就)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⑦ 발달장애음악인 최준



'피아노병창'이란 새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최준 씨는 장애를 떠나 한 사람의 음악인으로서 묵묵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佛心과 의지가 만든 '피아노 병창'

피아노 병창이라는 말은 생소한 단어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런 음악용어가 있었나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피아노 병창은 발달장애 2급 음악인 최준 씨가 만든 음악용어다. 올해 31살인 그는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한 국악인으로, 작곡과 연주활동을 하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하다.

"가야금+판소리는 가야금 병창, 피아노+판소리는 피아노 병창이에요"

최준 씨가 어느 날 말했다. 그것이 그만의 피아노병창 장르가 되었다. 피아노 연주와 함께 판소리의 한 대목이나 정가 단가 잡가 민요 등을 부른다.

최준 씨는 박록주 명창기념 '전국국악대전' 판소리 고등부 장려상(2009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기념 'MBC 스페셜 위대한 탄생' 대상(2013년) 등을 수상하였고, 2003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개인 공연을 비롯해 수십 차례의 공연을 펼치고 앨범을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KBS '인간극장', SBS '스타킹', EBS '다큐프라임'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발달장애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15개 법정 장애인 중 하나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구분하며, 인지와 언어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상호능력이 부족하지만,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성을 갖고 있으므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폐성 발달장애인 중에는 음악이나 수학 등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예가 많다. 최준 씨가 바로 그런 경우일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물놀이를 배웠는데 뛰어난 음감으로 다른 아이들이 실수하면 그때그때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학원을 그만두었던 일화도 있다고 한다. 발달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받고 수업을 그만두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최준 씨 가족이 불교와의 인연을 맺은 건 발달장애 진단을 받고 1~2년이 지났을 무렵 지인의 권유로 안양 한마음선원을 나가면서부터다. 최준 씨는 법당에 들어가면 부산스러움이 없어지고 절도 잘해서 108배로 이어질 정도였다. 그는 스님들의 염불소리를 좋아했으며 염불을 똑같이 따라 하기도 하고 예불문, 경전 등 스님의 염불소리와 법사스님의 법문, 도량 곳곳의 모습 등 사찰의 모든 것들을 소재로 작곡을 했다.

작년 8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남산국악당에서 작곡발표회 '서른나기'를 개최했다. 지난 10년간 그의 온몸으로 울림을 줬던 많은 순간과 소리를 국악 클래식 재즈 그리고 불교적인 음률로 작곡한 곡들을 선보였다. 특히 부처님 법이 담긴 '무상', 공(空) 사상을 표현한 '색즉시공 공즉시색' 등 불교음악을 큰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이기에 의미가 컸다.

2020년 9월에 프랑스에서 〈준이오빠〉라는 제목으로 최준 씨를 소개하는 책이 프랑스어로 출간되었으며 올해는 이탈리아에서 출간될 예정으로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 신체적 발달장애를 더하지 않고 오롯이 완성음악으로 보아주는 이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른다.

최준 씨 부모님은 발달장애를 키우면서 장애를 향한 세상의 무수한 오해와 편견 등 여전히 힘이 들지만 이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며 불교는 힘든 세상을 살아갈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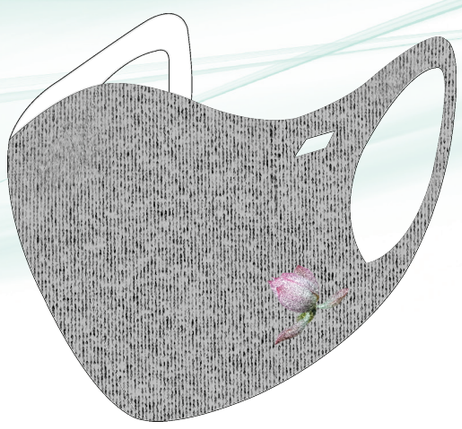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불자에 대한 인식개선은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아니다. 진정한 인식개선은 장애로 인해 생기는 '다름'을 바로 인정해주고 가진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최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명창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가 좋아하는 음악활동을 꾸준히 하며 그것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어머니가 최준 씨와 함께 무대에 올라 아들의 장애를 설명하지 않아도 관객들이 그의 피아노병창에 박수치며 감상하고 최준의 음악성을 인정해 비로소 발달장애소리꾼이 아닌 소리꾼 최준이 되는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

천안제일로 시각장애인인 아나율과 발달장애인인 주리반특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부처님의 혜안과 살핌이 있었다. 장애인의 달 4월 부처님의 마음으로 장애불자들을 바라봐 줬으면 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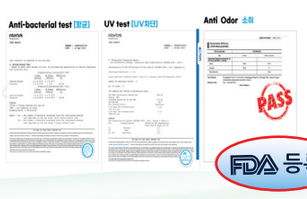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